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8.01~26.08.31)

□ 제2회 구역 단위 리노베이션 간담회를 개최 [8/3]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역 고유의 고유한 매력을 살린 도시재생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현장 실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구역 단위의 리노베이션 방안을 모색해 왔음
- 구역 리노베이션 간담회는 인구감소와 저출생·고령화로 가속화된 빈집 및 유휴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족한 정부주도 민관협력 자문기구임. 기존의 대규모 개발중심 도시재생 방식에서 벗어나, 거점중심으로 기존 도시자산을 재생하여 지역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음. 정부가 판을 마련하되 학계 전문가와 민간 현장실무자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함
- 국토교통성은 요코하마국립대학교 노하라 타쿠 교수를 좌장으로 위촉하고, 지역별 실천적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구역 리노베이션 간담회를 정식 출범시켜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이러한 논의를 한층 더 고도화하고 우수한 실증현장의 경험을 정책에 직접 접목하고자 현장방문과 자문회의를 연계한 세부 일정을 마련함
- 이번 행사는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일원에서 현장견학과 회의를 결합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임. 당일 13시부터 15시까지는 야마가타 시내 일대에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하는 에스커션(체험형 견학)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이어서 15시부터 17시까지는 야마가타시 중앙공민관 대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본 회의가 열림. 2차 간담회에서는 앞서 진행된 현장 견학 내용과 1차 회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역 리노베이션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및 행정 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펼침
- 본 회의의 세부 의제로는 국토교통성 사무국 설명과 야마가타시 하타구치 카즈히사 정책 조정감의 게스트 위원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바바 위원의 전문가 발표 등이 포함됨
- 국토교통성은 본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심층적 제안과 구체적인 논의 성과를 정리하여 추후 공식 홈페이지에 널리 공개하고,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재생 지원 지침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임

□ 제8회 일·방글라데시 조인트 PPP플랫폼 회의를 개최 [8/5]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017년 6월 방글라데시 PPP청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 아래 현지 도시개발 등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발굴 및 실현을 지속 추진해 옴. 특히 올해 2월 방글라데시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기존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인프라 사업 진출을 확대할 발판을 마련함
-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성은 방글라데시 PPP청과 공동으로 2026년 7월 29일 방글라데시 다카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8회 일본-방글라데시 조인트 PPP 플랫폼 회의'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일본 측에서 우노 요시마사 내각총리대신 보좌관과 국토교통성 후지타 마사쿠니 대신관방 심의관, 주방글라데시 일본대사관 사이다 신이치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해 약 95명이 참석함. 방글라데시 측에서는 PPP청의 초드리 아시크 마후무드 빈 하룬 청장과 총리실, 철도성, 도로교통·교량성 등 주요 부처 차관급 인사 30여 명이 대거 참석함
- 회의에서는 기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샤리아트푸르-찬드푸르 도로교량 건설과 바리살-볼라 도로 상의 볼라교 건설 등 방글라데시 측이 제안한 신규교량사업 2건을 새로운 협의 프로젝트로 최종 선정함
- 이 플랫폼을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는 협의에 참여한 일본기업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되어, 향후 일본 기업의 방글라데시 인프라 PPP 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회의 현장에서는 일본과 방글라데시 양측이 각각 1건씩 추가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다짐
- 국토교통성은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들의 사업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일본기업의 해외 인프라 시장 수주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방침임

□ 건설계 스타트업 기술 카탈로그 게재 기술을 추가 모집 [8/5]

-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내 스타트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건설 분야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이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제품 및 서비스의 현장 활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절감함
- 이러한 배경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스타트업 기술의 상용화와 보급을 다각도로 지원하고자 지난 2026년 3월 27일 「건설계 스타트업 기술 카탈로그」를 최초로 수립 및 공표하여 건설 시장을 향한 활발한 정보발신을 추진해 옴. 나아가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수록내용을 한층 보완하고 현장 맞춤형 신기술 정보를 더욱 다채롭게 확충하기 위해 추가 공모절차에 착수함. 이번 모집 행사는 건설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카탈로그 신규 등재 신청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 추가 공모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5일 수요일부터 8월 31일 월요일 17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관심 있는 기업은 안내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서류와 세부요건을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됨. 응모 자료 제출 및 검토 실무는 일반재단법인 국토기술연구센터가 담당하며, 카탈로그 운용 및 제도 전반은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기술조사과에서 총괄 관리함
- 국토교통성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첨단 ICT, AI, 자동화 장비 등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채로운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수집된 우수 기술정보는 카탈로그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국의 공공기관, 지자체, 대형 건설사 등에 널리 공유될 예정임

□ 경관 에어리어 리노베이션 사업의 시범 도시를 선정 [8/6]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026년 5월 27일 개정 공포된 경관법에 발맞추어 건물 노후화 등으로 훼손된 시가지 경관을 복원하기 위한 「경관 에어리어 리노베이션 사업(경관재생사업)」을 수립함. 이 제도는 지자체가 민간기업 등을 경관정비추진법인으로 지정하고 건물소유자와 협정을 체결해 소유주를 대신해 노후건물의 개수 및 리노베이션을 대행함으로써 지역경관을 재생하는 구조임

- 국토교통성은 제도 신설 후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토오야마 현 토오야마시를 시범 도시로 선정해 선도적 재생조치를 위한 밀착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발표함
- 이번 지원 대상지로 확정된 토오야마시 미나미토오야마역 일대는 1915년 시내 노면전차가 연장된 이래 다수의 학교가 입지한 문교지구이자 역앞 상가·주택가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온 역사적 지역임. 그러나 최근 인구 고령화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빈집과 빈 점포가 늘어나며 과거 정겨웠던 거리의 온기가 점차 사라지는 정책적 과제에 직면해 왔음. 한편 최근 역앞 광장 재정비 추진과 더불어 기존건물의 임시 활용 등 민간 사업자와 지역 단체의 자발적 움직임이 일면서, 새로운 역앞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거점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 이에 따라 토오야마시는 미나미토오야마역 주변의 생활경관을 되살리고 거점성을 살린 건물 활용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 민간사업자를 발굴하고 관민 연계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향후 경관정비추진법인이 될 유망 사업자 탐색, 지역 주민과의 합의 형성,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경관 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차례로 추진함

□ 2026년도 공공공사에 관한 조사 및 설계 등의 품질 확보에 기여하는 기술자 자격의 등록 신청 및 등록 갱신 [8/6]

-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로,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사회자본 스톡)의 적절한 유지관리와 보수를 시행하는 데 있어 점검 및 진단의 품질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 옴. 현장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전문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기술수준을 갖춘 민간자격을 「국토교통성 등록자격」으로 공식 인정하는 제도를 2014년도부터 전격 도입해 추진 중임
- 이 제도를 통해 2026년 4월 기준 총 411개 자격이 성공적으로 등재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정부는 등록자격의 신규 확충과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이번 공모 및 갱신 절차를 마련함
- 이번 공모는 통산 13회째를 맞이하는 「2026년도 공공공사 관련 조사 및 설계 등의 품질 확보에 이바지하는 기술자 자격」의 신규등록 신청과 더불어, 2021년도에 등재되었던 75개 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을 동시에 받는 행사로 구성됨
- 자격인정 신청기간은 2026년 8월17일 월요일부터 9월16일 수요일 17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수집된 민간 자격안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자 자격제도 소위원회」의 심층평가와 자문을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임. 등재 요건을 충족한 민간자격은 2026년도 내에 국토교통성 공식 등록자격으로 인정되어 유효한 효력을 얻게 됨
- 국토교통성은 본 등록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에 대해 공공공사 발굴 및 입찰과정의 종합 평가낙찰제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현장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공공기관에도 해당 자격의 신뢰도와 활용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전국적인 인프라 유지관리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함

□ 2026년도 우량 목조건축물 등 정비추진사업 채택 프로젝트 결정 [8/7]

- 일본 국토교통성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우수한 탄소저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대규모 목조건축물의 보급 촉진과 목조화 관련 선도적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교통성은 목조건축물 분야의 보급 및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자 '우량 목조건축물 등 정비추진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함

- 지원 부문은 크게 조사·설계비와 건설공사비 두 가지로 나뉨. 조사·설계 부문에서는 목조건축물 추진 시 발생하는 초기 조사 및 설계 비용의 최대 2분의 1을 지원함. 건설공사 부문에서는 일반건축 대비 목조화로 인해 추가되는 건설공사비의 최대 2분의 1까지 보조받을 수 있음. 지원 금액은 사업의 구조와 규모 등 상세 유형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조건 충족 시 건물당 최대 2억 엔에서 3억 엔까지 보조금이 지급됨
- 이번 사업은 2026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모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선도적 기술이 도입된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함
- 이번 발표는 목조화에 관한 선도적인 설계 및 시공기술이 도입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선도 프레임 부문의 채택 결과로, 공모 기간 중 제출된 총 2건의 제안서가 심사를 거쳐 모두 최종 채택됨. 앞서 국토교통성은 동시 모집했던 일반 보급 프레임의 선정결과를 지난 7월 17일에 선제적으로 공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선도 부문 2건을 추가 확정함에 따라 당해 연도 주요 지원대상 선정을 일단락 지음
- 지원 대상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들에는 향후 중·대규모 목조건축물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보급을 촉진할 혁신 공법들이 차례로 적용될 예정임. 국토교통성은 2회차 이후의 추가 모집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결정 시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아울러 그동안 채택된 우수 사례들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널리 공유하여 민간 건축 시장의 목조화 전환 및 친환경 탄소중립 이행을 계속해서 강력히 견인해 나갈 방침임

□ 장관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정지 조치에 대해 [8/7]

-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관청영선부는 8월 7일자로 주식회사 도쿄에네시스(도쿄도 소재)지명정지 조치를 내림
- 주식회사 도쿄에네시스 직원은 군마현 우에노촌이 발주한 마을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에서 우에노촌 직원으로부터 비공개 설계금액을 입수하여, 낙찰받은 것으로 2026년 6월 16일 군마현 경찰에 공공경매입찰방해 혐의로 체포됨
- 상기 행위는 「관청영선부 관할하는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정 정지 등의 조치 요령(1984년 4월 1일자 건설성 제124호 별표 제2제8호에 해당함
- 이에 따라 해당 업체를 2026년 8월 7일부터 2026년 10월 6일까지의 3개월 지명정지 조치를 내림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6년 6월분) [8/10]

- 2026년 6월 수주총액은 12조 1,219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은 7조 7,755억 엔(전년동월대비 0.5% 감소)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4조 3,464억 엔(전년동월대비 28.3% 증가)으로 3개월 연속 증가임
- 업종별로는 종합공사업이 6조 5,951억 엔(전년동월대비 1.4% 증가, 4개월 만의 증가)이며, 직별공사업이 1조 6,887억 엔(전년동월대비 27.4%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임. 설비공사업은 3조 8,381억 엔(전년동월대비 13.7% 증가, 22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7조 7,755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2조 6,004억 엔(전년동월대비 11.6%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5조 1,751억 엔(전년동월대비 5.7% 감소, 4개월 연속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7조 7,755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2조 704억 엔(전년동월대비 12.0% 증가, 3개월만의 증가)이며, 건축공사는 4조 8,190억 엔(전년동월대비 3.7% 감소, 전월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임. 기계장치공사는 8,861억 엔(전년동월대비 8.1%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임

□ 국토교통대신의 필리핀, 말레이시아 출장결과 개요 [8/17]

- 일본 국토교통성의 카네코 야스시 국토교통대신은 주변 해역의 안보정세가 엄중해짐에 따라 연안국과의 해상보안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순방함. 이번 출장은 「진화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실현을 목표로 지역해양 안전 및 해양 질서를 유지하고,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서 동남아 주요 2개국과의 전략적 연계를 심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카네코 대신은 8월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방문하여 양국 간 해상보안 협력 심화방안을 논의 및 확인하였으며, 12일에는 필리핀 관광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관광 및 인적 교류 활성화를 논의함. 이어 13일에는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로 이동하여 말레이시아 운수부 장관 및 내무부 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교통 인프라 협력과 구체적인 해상 안전 연계 방안을 협의함. 특히 말레이시아 내무부 장관과의 회담 현장에서는 양국 간 해상보안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교환식에 입회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짐
- 국토교통성은 이번 순방성과를 바탕으로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국토교통 및 인프라 분야 협조 관계를 한층 공고히 유지해 나갈 계획임. 또한 동남아 연안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역내 해상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글로벌 정책 연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

□ 배수펌프장 펌프설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민간사업자를 공모 [8/18]

- 일본 국토교통성은 배수펌프장 등 주요 하천 기계설비의 노후화 및 열화 경향을 AI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기능 상실을 예방하고 적절한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함
- 이번 사업은 민간기업의 기술과 전문 지견을 접목하여 하천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실현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고자 기획됨
-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펌프제조사와 AI 개발 벤더가 상호연계한 연구개발 그룹을 선정하기 위해 2026년 8월18일부터 9월15일 정오까지 민간사업자 대상 공모를 진행함. 선정된 연구개발 그룹은 정부의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배수펌프장 펌프설비를 대상으로 한 △ 이상검지 시스템 및 △ 수명예측 시스템의 2가지 테마에 대한 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됨
- 이상검지 시스템 개발 과제는 세부개발 테마로 ① 이상검지·이상요인분류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개발, ② 이상검지 모델의 개발, ③ 이상요인 분류모델의 개발로 구성됨. 수명예측 시스템 개발 과제는 세부개발 테마로, ① 리스크진단·수명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개발, ② 현황의 건전성·고장 리스크 진단 모델 개발, ③ 중장기적인 잔존수명예측·고장확률예측모델 개발로 구성됨
- 본 공모에 참여하는 그룹 내에 '인프라 시설관리 AI 협의회' 미가입 법인이 포함된 경우 해당 협의회 입회 신청을 병행해야 하며, 세부 모집요강 및 신청 접수는 운영 위탁기관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됨.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1건 당 최대 3,000만 엔을 PMO사업자(주식회사 미쓰비시종합연구소)로부터 위탁비로 지불할 예정임. 채택 건수는 4건을 예정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이번 산학관 기술 협력을 통해 하천 방재 시설의 신뢰도를 대폭 높이고 첨단 AI 기반의 인프라 모니터링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 나갈 방침임